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조정팀
2	×	○	담당관 : 김동석 (02-3677-2050) 팀 장 : 장영자 (02-3677-2051) 담 당 : 서혜란 (02-3677-2052)

과천시, 41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

-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질 위기”...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38억 현금 지원, 정부지원금 못 받는 사각지대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3억 지역화폐 지원

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천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업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반복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가 총 41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 대책으로 38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들에게 3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과천시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과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 일반업종 중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액이 감소한 업

소에 대해 업소당 100만 원씩 약 22억 원 ▲ 영업제한 업종 730여 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150만 원씩 약 11억 원 ▲ 집합금지 업종 250여 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200만 원씩, 약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안정지원금은 ▲ 과천시민 중 관외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관내 자영업자 중 정부와 과천시가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대상 400여 개 업소에 업소당 50만 원 씩, 약 2억 원 지원 ▲ 과천시민 중 2019년 연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개인 연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문화, 예술, 체육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200여 명에게 개인당 50만 원씩 약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관내 배달음식 위생업소 490여 개소에 친환경 배달 용기 지원, 관내 음식점, 카페 등 100여 개소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소상공인 긴급 지원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월 중 과천시의회에 긴급 임시회를 요청했고 4일과 5일 양일간 과천시의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과천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종천 시장은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분들의 삶을 지탱하게 도와주고, 지역경제 회복에 필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과천시 자체적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하루 빨리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 달라”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 6억 5천만 원 규모의 이자차액 보전사업 ▲ 과천배달앱 활성화 지원 ▲ 연간 250억 원 규모의 과천토리 연중 10% 할인 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다.